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우리 딸

송종용/심리학 박사, 서울학습장애상담센터 소장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는 우리 딸은 강아지를 참 좋아한다. 예전부터 강아지 한 마리 — 키우는 것이 소원이다. 하지만 우리 집은 아파트인데다가 큰 아이가 아토피성 피부부여서 개를 키우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여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 딸은 강아지를 키우는 친구 집에 놀러갔다 올 때마다 강아지를 사달라고 말을 한다.

“강아지가 귀여웠나보구나?”

“응, 너무 예뻐.”

“예뻐서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데... 너도 알다시피 오빠한테 강아지가 좋지 않다고 하거든, 그래서 강아지를 키울 수 없어. 이해 해 줄 수 있니?”

“그래도, 강아지 사면 안돼?”

“아빠도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데, 그 마음을 꼭 참고 있어. 너도 속상하지만 오빠를 위해서 그럴 수 있겠지?”

“알았어.”

이런 대화가 몇 달에 한 번은 있기 마련이다.

며칠 전이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딸 아이가 현관에서 고개를 끄덕하면서 꺼내는 첫 마디가

“아빠, 강아지 사주라. 강아지 2마리 사줘.”

얼마나 강아지가 갖고 싶었으면 아빠가 신발을 벗기도 전에 그 말부터 할까.

내가 집에 오기 전에도 엄마하고 강아지 얘기

를 했겠구나 싶었다.

그토록 강아지를 갖고 싶어하는 아이의 마음이 안쓰러웠다.

나는 현관에서 구두와 외투를 벗고 소파에 가서 앉은 우리 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두 손을 강아지처럼 앞으로 모으고는, “멍멍” 소리를 내며, 강아지처럼 내 머리를 딸아이 품에 안겼다.

우리 딸은 나를 쳐다보더니 바로 웃으면서 내 머리를 마치 강아지한테 하듯이 쓰다듬었다.

나는 계속 “멍멍” 짓으면서 잠깐 동안 재롱을 떨었

다.

몇 분을 그렇게 놀고 난 뒤에 우리 딸은 신이 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웃을 갈아입으러 안방으로 갔다.

내가 강아지처럼 행동하고 우리 아이와 함께 노는 것이 아이의 마음을 위로하고 강아지를 갖고 싶다는 욕망을 잠재우게 한 것 같았다.

그 잠깐 동안 나와 우리 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오갔을 것이지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지만, 우리 둘은 너무 기분이 좋았다.

때로는 가르치는 말보다, 설득하는 말보다, 그저 공감만 하는 말보다 아이의 심정이 되어서 아이의 상상 속에서 같이 노는 것이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아이의 마음을 살찌우는 것이 아닌가 싶다. **PPFK**

